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방 재무장관 “파월 의장, 지금 물러날 이유 없다”

[미국 금융]

- WSJ: 금값, 약세 불구하고 한 달간 최고치 유지

[무역전쟁]

- CNBC: 연방 재무장관 “중국과의 관세 유예, 8월 12일 이후 연장 가능성 있다”
- Bloomberg: 한국, 미 관세 합의 위해 민감한 농산물 관세 완화 검토

[글로벌 경제]

- WSJ: 미 관세 여파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 회복세

[오일/가스]

- WSJ: 오일가, 수요·공급 우려로 하락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Joby Aviation, 2026년 5대 에어 택시 최종 인증 목표
- Bloomberg: 한국 FuriosaAI, Nvidia 경쟁 AI 칩으로 LG 첫 주요 고객 확보
- WSJ: GM, 11억 달러 관세 충격으로 2분기 순이익 감소
- TechCrunch Mobility: Uber, 프리미엄 로보택시로 미래 주행 시장 공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Bessent Sees No Reason for Powell to Step Down From Fed Now

연방 재무장관 “파월 의장, 지금 물러날 이유 없다”

- 연방 재무장관 Scott Bessent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며, 그의 사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그러나 그는 파월 의장이 향후 퇴임 업적과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드는 건물 리노 베이션 등 연준의 비통화적 정책들을 적절히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편,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의 전 CEO Mohamed El-Erian은 파월 의장의 목표가 연준의 자율적 운영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연방 재무장관 Lawrence Summers는 이러한 입장은 잘 못된 생각이며,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금융]

WSJ: Gold Futures Slip But Keep to One-Month Highs 금값, 약세 불구하고 한 달간 최고치 유지

- 달러가 일부 약세에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값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한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현재 금 선물은 0.3% 하락한 온스당 \$3,398.40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달러가 급등했던 월요일에 금값은 랠리를 보이며 이번 주 들어 1.1% 상승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금값이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8월 1일 관세 유예 마감이 다가오고 있고, 연준 파월 의장의 불확실한 지위에 따른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 달러 강세를 제한하면서 금값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무역 전쟁]

CNBC: Bessent says Aug. 12 China tariff deadline likely to be extended, talks planned in Stockholm 연방 재무장관 “중국과의 관세 유예, 8월 12일 이후 연장 가능성 있다”

- 연방 재무장관 Scott Bessent는 트럼프 정부와 중국 간의 관세 유예 마감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 측 무역 파트너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양측은 지난 5월 중순, 무역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호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 Bessent 장관은 향후 중국과의 만남에서 “중국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Korea Weighs Easing Sensitive Farm Tariffs to Clinch Trump Deal 한국, 미 관세 합의 위해 민감한 농산물 관세 완화 검토

- 한국은 미국의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양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7월 25일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와 쌀 시장 개방 등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해 국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GDP의 40%를 수출이 차지했으며,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The Global Economy Is Powering Through a Historic Increase in Tariffs

미 관세 여파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 회복세

-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 기업들은 물류 경로를 변경하고 공급망을 조정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은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량과 주식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한편 JP모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Fall on Demand Growth and Production Concerns

오일가, 수요·공급 우려로 하락세

- 오일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수요가 둔화되면서, 지난 3일간 거래에서 오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화요일 만기를 앞두고 1% 하락한 배럴당 66.56달러를 기록했으며, 브렌트유는 0.9% 하락한 68.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OPEC의 증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Joby Seeking Final-Phase Testing for Five Air Taxis in 2026

Joby Aviation, 2026년 5대 에어 택시 최종 인증 목표

- Joby Aviation Inc.은 2026년 초 상업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내년 5대의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를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최종 승인 테스트

에 투입할 계획이다.

- Joby는 두바이에서 내년 초 상업용 여객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근 UAE에서 유인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장의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려 연간 최대 24대 항공기를 제조하고, 오하이오 신규 시설에서 부품 생산 설비를 설치 중이다.
- Joby는 Toyota와 협력해 제조 공정을 개선하며, 토요타는 약 9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 CEO JoeBen Bevirt는 항공기 판매, 자체 운영, 부분 소유 벤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vidia Chip Challenger FuriosaAI Scores First Major

Customer LG

한국 FuriosaAI, Nvidia 경쟁 AI 칩으로 LG 첫 주요 고객 확보

-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 FuriosaAI가 LG로부터 제품 승인을 받아 AI 인프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 FuriosaAI의 RNGD 칩은 Nvidia뿐 아니라 Groq Inc., SambaNova Systems Inc., Cerebras Systems Inc. 등 경쟁사와의 경쟁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 2017년 삼성전자와 AMD 출신 백승우 대표가 설립한 FuriosaAI는 AI 추론용 반도체를 개발하며, 그래픽처리장치 대비 와트당 2.25배 향상된 추론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FuriosaAI와 LG는 전자,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RNGD 서버와 Exaone AI에 이전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 FuriosaAI는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추가 고객을 확보하고, 하반기 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회사는 지난 3월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본 조달 후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WSJ: GM Profit Shrinks After \$1.1 Billion Tariff Hit

GM, 11억 달러 관세 충격으로 2분기 순이익 감소

- General Motors는 2분기 관세로 인해 11억 달러의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하며, 순이익이 전년 29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감소했다.
- GM은 미국 내 생산 확대 등 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나,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다.
-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GM은 뉴욕의 전기차 모터 공장을 9억 달러를 투입해 V-8 엔진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4월 트럼프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로 GM은 연간 40억~50억 달러의 비용 증가를 예상하며, 30%를 상쇄하기 위해 제조 기반을 조정하고 있다.
- GM은 상반기 판매량이 업계 평균(7%)을 상회하는 12% 증가를 기록했으나, 2분기 도매 판매와 전체 매출은 각각 7%와 2% 감소했다.

TechCrunch Mobility: Uber makes a bet on premium robotaxis Uber, 프리미엄 로보택시로 미래 주행 시장 공략

- Uber가 프리미엄 로보택시 개발에 집중하며 자율주행 기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배송, 로보택시, 트럭 등 다양한 분야의 거의 모든 자율주행 차량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Waymo의 자율주행 트럭 프로그램 종료 후, 일부 인재들이 새로운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Rivian은 Mapbox를 대체해 Google Maps기반의 새로운 차량 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 Tesla는 인도 시장에 9년 만에 첫 쇼룸을 열었으며, 사이버트럭 판매는 지난 해 정점 대비 급감해 GMC 허머 EV에 뒤졌다.
- Subaru는 2026년 초 미국에서 3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 크로스오버 'Uncharted'를 출시할 계획이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실적 낙관론에 강세...S&P500·나스닥 최고치 마감 S&P 500 지수, 6,300선 첫 돌파 마감...나스닥, 6거래일 연속 최고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21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14%) 오른 6,305.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8.51포인트(0.38%) 오른 20,974.17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12포인트(-0.04%) 내린 44,323.07에 약보합 마감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